

## ‘X파일 보도’ 이상호 기자 항소심서 유죄판결 ‘논란’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인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MBC 이상호 기자에게 항소심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죄를 인정해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하는 게 옳지만 보도의 정당성과 개인의 의사라 아닌 방송국의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보도가 된 점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용호 부장판사)는 23일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호 기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처럼 국민과 국민 사이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헌법 정신과 법리에 따라야 한다. 이씨의 보도 행위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것이어서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특별히 위법성 조각 조항을 두지 않고 ‘침묵’하는 이유는 개인을 발가벗겨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통법법은 엄격한 ‘법의 울타리’를 쳐주고 있다. 이 울타리 안에서 때로 부끄럽고 추잡한 대화가 오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쉽게 위법성을 조각해 이 울타리를 열어놓는다면 권력은 울타리를 넘어 ‘독과’(毒果)를 따 타인의 비밀을 쉽게 알아내려는 유혹에 빠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법원은 도청 테이프 보도와 관련해 언론의 모든 보도행위에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다”며 “보도 행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 광주 특수학교 교사 탈락자 14명

### “정원미달 선발은 행정 잘못” 소송

광주시교육청이 올 초 중등 특수학교 교사를 당초 모집 정원에 훨씬 미달해 선발한 것과 관련, 탈락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1월 공·사립 중등 특수학교 교사 27명을 선발하기로 한 방침과 달리 최종 17명을 선발하자 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최모씨 등 14명이 인사정책이 잘못됐다고 광주 행정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시 교육청은 특수학교 교사 선발에 응시한 총 63명을 상대로 1차 필기시험(교육학·전공)을 실시해 36명을 뽑아 놓고 2차 시험(논술·면접·학습지도안작성)에선 정원에 10명이 미달한 17명을 선발한 것은 인사행정상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탈락자들은 “시 교육청이 당초 특수교사 모집정원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가 예산부족 등을 감안해 과락을 무리하게 적용해 정원에 미달해 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차 시험에서 탈락한 19명은 전공과목서술에서 과락(배점의 40% 미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전북 익산서 조류독감 의심 바이러스 발견

# 닭·오리 수출 큰 타격 우려

### 닭 6천여마리 폐사

전북 익산 지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Avian Influenza)로 의심되는 바이러스가 발견돼 방역당국과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부는 이번 발생한 AI의 경우 감염 조류에 접촉한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발생 지역에 항바이러스제를 긴급 지원키로 했다.

농림부는 “익산의 종계(씨알닭) 사육 농장에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전체 1만3천여 마리 닭 가운데 6천여 마리가 죽었고 23일 1차 검사결과 집단 폐사 원인이 의사 AI 바이러스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최종 확진 결과는 25일께 나올 예정이지만 전문가들은 폐사 상태 등으로 미뤄 ‘고병원성’ AI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 검사 결과 AI로 판명되면 닭 및 오리의 수출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고병원성 AI는 닭·오리 등 조류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림부는 고병원성 AI 관점에 대비, 전북도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 요령’과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닭과 달걀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이 농장의 달걀을 부화하는 익산 소재 부화장 2개소도 폐쇄토록

했다. 또 해당 농장에 살아있는 닭 6천여 마리도 살처분한 뒤 땅에 묻도록 조치하고 반경 10km 이내 인근 농장에 대한 역학 조사도 시작했다.

현재 10km 범위 안에는 204개 농가 506만3천 마리, 500m 안에는 6개 농가 23만여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발병 농장에서 8~9km 떨어진 곳에 우리나라 닭고기의 30~40%를 공급하는 최대 닭 가공업체 ‘하림’과 역시 주요 가공업체인 ‘동우’의 도축장과 여러 계열 농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2003년 12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전국 10개 시·군 19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530만 마리의 닭·오리가 살처분되는 등 1천5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바 있다. /연합뉴스



23일 질병관리본부와 전북도 축산진흥연구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관계자들이 조류독감 의심 바이러스가 발견된 전북 익산시 함열읍 중계 사육장에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N-POOL = 전북일보 이강민기자

## 전북 인접 10곳에 방역초소

### 나주·영암·함평 특별예찰

#### 전남도 긴급 방역 대책

전남도는 전북 익산의 종계사육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Avian Influenza)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닭이 발견됨에 따라 특별대책 상황실을 마련,

전북 인접지역에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지역 닭·오리 사육농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23일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전북과 인접한 장성·담양·곡성·영광 등 10곳에 방역초

소를 설치, 24일부터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운반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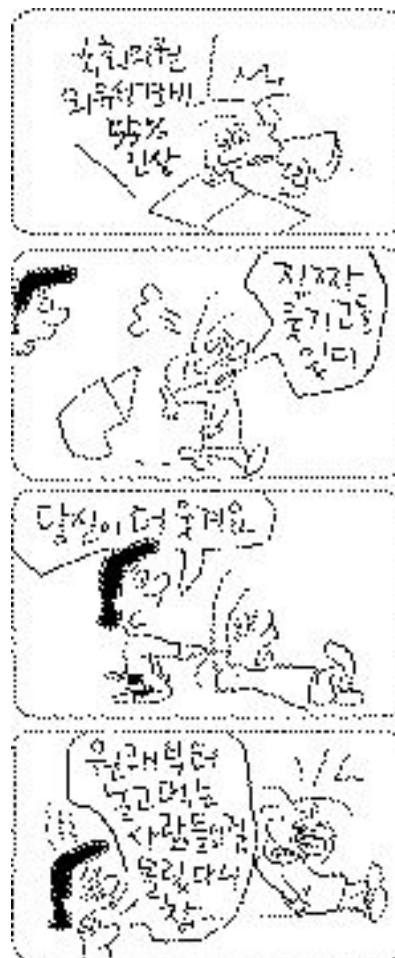
도는 이와 함께 지난 2003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했던 나주를 비롯해 가금류 집단사육지인 영암·함평 등 3개 지역을 집중관리 대상지역으로 선정, 370명의 예찰 요원으로 하여금 매일 1회 특별예찰을 하도록 했다. 또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주 3회 이상 예찰 활동을 펼치도록 했다.

도는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고천암·순천만·주안호·영산호 등 4개 철새도래지에

## 익혀서 먹으면 인체 감염안돼

▲조류독감(Avian Influenza)=닭·오리 등의 가금류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질환. 감염된 조류의 콧물·호흡기 분비물·대변 등에 접촉한 조류들이 다시 감염되는 형태로 전파되며, 철새들에 의해 많이 전파된다.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약병원성·비병원성으로 구분되며, 고병원성은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닭은 감염되면 80% 이상이 호흡곤란으로 폐사한다. 1997년 홍콩에서 처음으로 인체 감염을 일으켜 6명이 사망했고, 2003년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유행하여 모두 23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12월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H5N1형 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래 몇몇 지역에서 검출되었으나, 인체 감염 사례는 없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75도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사멸하므로 닭·오리 등을 충분히 익혀 먹으면 감염되지 않는다. 조류독감에 감염되면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면서 기침·인후통·호흡곤란 등 감기나 독감과 비슷한 증세가 나타난다.



평동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려는 3,636세대에게!  
평동신도시 파오래  
수원신도시 파오래  
문의: 062-367-9000

## 부산 선박, 완도 김 양식장 파손 도주

○완도해양경찰은 23일 마을 공동 소유의 김 양식장에 피해를 주고 도주한 부산선적 496t 화물선 ‘에버부산호’ 선장 김모(66·서울시 성북구)씨와 선원 등 8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해경에 따르면 ‘에버부산호’는 지난 20일 밤 10시경 완도군 소안면 미마리 마을 앞해 설치된 5개 마을 55가구 소유의 김 양식장 700책(1책=2.2x40m)을 손괴해 시가 1억5천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히고 달아났다.

○이 배의 선장과 선원들은 잠수부를 동원해 배 밑바닥과 스크류에 붙어 있는 김 양식 시설물을 제거해 양식장 손괴 사실을 은폐했는데,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완도 해경은 ‘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협조를 받아 피해 양식장 부근을 항해한 선박들의 항로를 추적해 검거.

○선장 김씨는 경찰에서 “미마리는 원래 김양식장이 아니라 항구였던 곳이라, 항구인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항로를 잡았다”고 밝혔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kwangju.co.kr

수능시험 끝!! 이젠, 중국어 시작!!

수험생 특별반  
3개월이면 중국어 된다

리틀자이나 中国語 学院

233-9582

경동 심야 전기보일러 특별보급

398만원에 특별공급합니다

010-9469-9373  
(062)673-4981